
英國 OFTEL, 10자리 番號計劃을 1年 延期

최근 영국의 전기통신규제기관인 OFTEL은 새로운 번호계획의 도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실시를 1995년 4월 16일까지 1년간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초 OFTEL은 일반가입전화의 수요증가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등의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현재 지역별로 3자리 또는 4자리로 되어 있는 전국의 시외국번을 모두 1자리씩 늘릴 예정이었으나, 설비대응에 따른 유예기간의 연장과 새로운 번호체제의 도입에 앞선 신규(新舊)번호의 병행운영기간을 될 수 있는 한 길게 설정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16일까지 1년간 이를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OFTEL은 이 조치가 새로운 번호계획의 도입에 따른 비용삭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번호체제의 도입후에는 번호할당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BT가 사실상 독점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전기통신서비스번호를 OFTEL의 일괄 관리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기존의 셀룰러서비스, 후리콜, 프리미엄서비스의 코드(code)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번호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번 변경에 따라 영국 전역에 기업내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구내교환기(PBX) 등 통신시설의 소프트웨어 개조가 필요하나, 개조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 비용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전화번호의 변경을 알리거나, 전화번호를 게재한 인쇄물을 고치는 등 상당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이용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英國의 C&W, 홍콩에서 電話事業 延長

영국의 C&W는 최근 홍콩정부와 새로이 홍콩에서의 전화사업을 연장하기로 합